

토, ▲소형저장탱크 이격거리 및 PSM 기준 완화, ▲LPG용기 재검사 비용에 대한 국비·지방비 지원 등 현장 현실을 반영한 정책 지원을 건의했다.

아울러, 현장 전문성을 활용한 실효성 있는 LP가스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오세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. 해당 개정안은 법정 사업자단체가 안전관리 사업에 직접 참여하고,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.

간담회를 함께 주최한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“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,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도 적극 협조하겠다”고 했다.

오세희 위원장은 “업계가 요청해 온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,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관계기관과도 계속 협의하겠다”며, “오늘 제기된 안전관리와 교육 등 현장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의원실 차원의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”고 밝혔다.

- ※ 별첨 : 1. 「LPG판매업 현안 간담회」 포스터
2. 「LPG판매업 현안 간담회」 현장사진

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

LPG판매업 현안 간담회

2026년 7월 27일(월) 14시
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



| 주최 |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(위원장 오세희)
국회소상공인민생포럼(대표의원 서영교)